

## 10대 여학생의 임신경험 관련요인에 관한 예측모형

이 종 화\*

### 초 록

본 연구는 선행연구 및 문헌을 토대로 10대 여학생의 임신경험과 관련된 개인적 요인과 사회·문화적 요인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을 통해 10대 여학생의 임신 예방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론적 기틀을 마련하여 청소년의 올바른 성문화 형성에 기여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 10대 여학생의 임신경험과 관련된 개인적 요인으로는 가출경험, 자아정체감 중 자기수용성, 미분화 성역할 정체감 등이 예측변인으로 규명되었고, 사회·문화적 요인으로는 가족집단(가족과의 동거), 또래집단(친구의 성경험, 친구의 임신경험)등이 예측변인으로 규명되었다.

이상의 연구의 결과에서 제시된 이론적 틀은 다차원적인 여러 관련요인을 포괄적으로 분석하여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구축되지 못하였던 10대 여학생의 임신경험에 관한 예측모형을 개발함으로써 청소년 관련 이론의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실무적 측면에서도 10대 여학생의 임신경험과 관련된 예측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관리하는 예방적 차원의 중재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본 연구의 이론적 틀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 10대여학생, 임신경험

\* 중앙대학교 강사

## I. 서론

### 1. 연구의 필요성

10대는 청소년기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다양한 변화과정을 경험하면서 자아개념과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시기이며, 성적 관심과 성적 충동이 높아지는 시기이다.

성에 대한 많은 관심과 성적 충동이 높은 10대들의 성 관련 경험에 대한 조사를 보면, 2000년 전국 남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혜원과 이해경의 연구에서는 10.7%, 2002년 남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김경희 외의 연구에서는 14.4%, 2003년 초·중·고등학생 및 비행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에서는 17%(한국경제, 2003)가 성교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중고생을 대상으로 10대 여성의 성 실태를 조사한 1998년 박영주 외의 연구에서는 임신경험이 0.7%이었고, 2002년 여자 중고생을 대상으로 한 김만지의 연구에서는 10대 임신 경험이 4.3%로 나타났다. 보건복지 백서(2001)에 의하면 미혼모시설 입소자 중 10대의 비율이 1992년에는 31.1%에서 1999년에는 59.4%로 증가한 것으로 보아 10대의 성 경험과 그에 따르는 임신은 그 추세가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0대 여학생들은 임신을 하게 되면서 대부분의 또래들이 갖는 정체감을 추구하기보다는 임신과 임신으로 인한 결과에 초점을 두게 된다. 그 결과 그들은 자신의 발달뿐 아니라 유아와의 관계에서도 부적응적인 행동과 부적절한 정서를 겪게 될 수 있다. 청소년기의 신체적, 성적 성숙은 발달론적 과업의 중요한 부분인데 이시기에 임신을 하게 되면 자신의 발달 단계에 따르는 과업 완수를 위한 노력에 온전히 집중할 수 없어 발달이 정지될 수 있다(유선미, 2001; 한영주, 1998; 한진숙, 2001; Trad, 1999).

10대 임부들은 보통의 산모군보다 질병에 이환되거나 사망할 확률이 높

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출산한 아기는 미숙아나 조산아, 선천성 질환의 발생빈도가 높으며, 심한 경우에는 사망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상원, 1999; 박영주 외, 1998; 최연순 외, 1999). 청소년들이 임신에 대한 해결로 많이 선택하게 되는 인공임신중절은 과다출혈, 감염, 난관폐쇄, 골반유착, 자궁천공, 패혈증, 심혈관계 합병증, 불임, 습관성 유산 등의 합병증이 있을 수 있는데, 인공임신중절을 경험한 10대 여학생의 22%가 인공유산 후 합병증을 경험했다고 한다(김상원, 1999; 박영주 외, 1998; 최연순 외, 1999; Levering, 1983).

신체적인 문제 이외에도 10대 임신한 청소년들이 겪는 심리적인 고통은 아기에 대한 죄의식과 상실감, 사회의 냉대로 인한 분노와 수치심, 불안과 소외감 등이 공통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에서 10대 청소년이 임신한다는 것은 외국과는 달리 유교적 윤리관과 도덕적 규범에 비추어 볼 때 용납될 수 없는 일로, 이를 죄악시하는 경향이 아직도 계속되고 있으며 임신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여성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는 현실로 인해 이중적인 고통을 받게 된다. 그리고 임신 사실을 통보 받은 성 파트너들은 임신중절을 권하거나 소식을 끊거나 아이를 부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혼자 부담하는 심적 고통이 크며, 인간에 대한 배신감, 좌절, 우울, 자존감 저하 등을 겪으며 자포자기하고 심한 경우는 자살에 이르기까지 하는 심리적 장애, 사회적인 부적응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문진숙, 2002; 박수천, 1998; 변명숙, 2000; 유선미, 2001; 한상순, 2000).

이러한 청소년 임신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미국질병관리소(CDC)는 1985년에서 1990년까지 10대들의 임신과 관련되어 소모된 보건비용은 1,203만 달러이었다고 보고하고 있고, 1989년 미국에서는 청소년 임신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음식과 의료비용, 부양아동을 가진 가족원조금으로 210억 달러가 넘게 지불되었다고 하며, 미국에서 보조금을 받는 여성의 59%는 첫아이를 출산한 10대들이었다고 한다. 이렇듯 사회는 10대 청소년 임신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복지적, 의료적, 법률적 문제들을

나누어 부담을 져야만 한다(Moore, 1990; Spitz et al., 1993; Wazak, 1990).

청소년들의 늘어나는 성 경험과 관련되어 초래될 수 있는 계획되지 않은 10대 여학생의 임신은 개인의 발달, 신체, 사회, 정서적인 면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그들이 속해 있는 국가와 사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으므로, 10대 여학생의 임신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의 성 활동과 임신이 증가됨에 따라 사회의 여러 영역에서 청소년 임신에 대한 연구들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연구된 10대들의 임신에 관한 국내 연구를 보면, 10대 여성들의 임신과 관련된 요인추구 및 요인관련 이론수준(김만지, 2002; 김부자, 1986; 김성이·김만지, 2002; 문진숙, 2002; 박영주 외, 1998; 배영미, 2001; 손홍숙, 1995; 유선미, 2001; 윤미현·이재연, 2002; 이숙희, 2000; 장순복 외, 2000; 주숙남, 1999; 천혜정 외 2002; 한영주, 1998; 한진숙, 2001)의 연구가 대부분이고 2000년도부터 상황관련 연구(윤미현, 2000)가 시도되고 있으나 10대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임신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을 규명할 수 있는 상황관련 이론수준의 연구는 미흡한 상태로 10대 여학생의 임신경험과 관련된 영향요인을 예측하고 판별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를 토대로 10대 여학생의 임신경험과 관련된 예측요인을 보다 다각적인 측면에서 규명하여, 10대 여학생의 임신을 사전에 예방하고 관리 할 수 있는 실제적인 중재방안 마련에 기여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개인적 요인과 관련된 변수와 임신경험과의 관계를 확인한다.

둘째, 대상자의 사회·문화적 요인과 관련된 변수와 임신경험과의 관계를 확인한다.

셋째, 대상자의 임신경험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사회·문화적 요인과 관련된 위험요인을 확인하여 예측모형을 구축한다.

## 2. 용어의 정의

10대 여학생은 학교에 재학 중인 13세부터 19세의 여학생으로, 본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재학생과 미혼모 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13세에서 19세의 여성을 의미한다.

## II. 이론적 배경

10대 여학생 임신경험과 관련된 요인은 한 가지 특정 요인만으로는 설명되거나 규정지을 수 없는 복잡한 현상의 결과로, 10대 여학생 임신의 발생요인을 개인적 요인과 더불어 사회·문화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손홍숙, 1995; 윤미현, 2000; 한상순, 1999; Goff & Goddard, 1999).

### 1. 개인적 요인

청소년들은 지적 능력이 낮을수록, 낮은 학교 성적을 경험할수록 임신할 가능성이 많아질 수 있고, 성폭력이나 가출을 경험한 청소년들의 임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한다(배영미, 2001; 한상순, 2000; Kalilm & Kunz, 1999; Small & Bogenschneider, 1994). Butler와 Burton(1990)은 성폭력 경험과 청소년 임신과의 관계를 조사하였는데, 10대에 아이를 출산하여 엄마가 된 청소년의 54%가 18세 이전의 성폭력 경험을 갖고 있었으

며, 불안, 불면, 자존감 저하, 자기 파괴적인 행동, 부정적인 자기관, 낮은 자기수용, 높은 성 관계의 허용도를 갖고 있음을 밝혀냈다. 성폭력 경험이 문란한 성행위나 매춘과 같은 성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성폭력 같은 상처를 받은 청소년이 그러한 경험이 없는 청소년에 비해 성 활동에 참여하는 성향이 매우 높아 10대 여학생 임신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강영실, 2000; 배영미, 2001; 이숙영 외1996; Garrett & Tidwell, 1999; Small & Bogenschneider, 1994). 임신한 10대 여학생들은 가출 경험자가 많았고(한상순, 2000), 10대 가출 소녀 중 60%이상이 성경험 내지 혼전임신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서울시 부녀복지 연합회, 1996) 가출경험이 있는 10대 여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10대들보다 임신 위험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김영숙(1998)의 미혼모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현재 아기아버지와 성관계 당시 피임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표본 미혼모의 대다수인 83.8%가 피임방법을 몰라 피임을 시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임지식은 성 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인이며, 10대 여학생의 임신을 감소시키는데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으나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회에서 부모들은 성에 대한 대화나 지식을 자녀에게 가르치는 것이 매우 미약하고, 성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나 피임법 등에 대해서는 등한시한다(유선미, 2001; 윤미현, 2000; Dryfoos, 1985; Kirby, Wasak & Ziegler, 1991). 네덜란드에서 고위험 집단인 10대의 1970년의 임신률이 1000명중 20명에서 1990년에는 8명으로 감소하였는데, 그 이유로 10대들의 효율적인 피임법 사용을 들 수 있으며, 이러한 피임법사용의 증가는 성교육, 대중매체, 공중교육 캠페인을 통한 홍보 및 낮은 문턱의 피임 서비스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Ketting & Visser, 1994).

우울한 10대 여학생들은 성관계 목적이 아닌 다른 개인과 친근감을 느끼고 사랑을 받는다고 느끼기 위해 성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임신의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Trad, 1999; Zuckerman, 1994). 우울이나 반사회적 행동이 청소년 성행동의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이들은 피임이나 임신방지를 위한 대처 행동을 못한다고 한다(Bogenschneider et al., 1994). 자아존

중감이 적을수록 충동적 성관계가 증가하고 자신을 확대하며, 자신의 가치가 낮다고 생각하여 스스로 제대로 돌보지 않아 10대에 임신을 하기 쉽고, 성행동시 피임 사용률도 자아 존중감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높다. 이는 자아존중감이 높을수록 성적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몸에 대한 소중함과 상대방에 대한 배려심이 높기 때문이다. 자존감과 통제 부족이 조기 성 경험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신의 인생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들은 혼전 임신 및 출산을 덜 하게 된다(Kalil & Kunz, 1999; Small & Bogenschneider, 1994). 이상에서 볼 때 개인의 심리적인 문제, 우울, 반사회적 행동, 자아존중감 등의 성격특성이 청소년기의 빈번한 성 활동 및 임신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성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의 하나가 자아정체감인데, 자아정체감은 개인의 주체적인 본질을 형성하는 것으로 안정되고 통합된 자아인식을 의미한다. 자아정체감을 잘 형성하지 못한 경우에는 자신감을 잃게 되고 자신을 무가치하고 무능한 존재로 여기면서 열등시하여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행동을 하게 되는데, 혼전의 10대 여학생의 임신은 이러한 부정적인 사회행동에 속한다. 안정된 자아정체감이 결여된 경우, 동조를 요구하는 남성의 위력에 쉽게 굴복하여 무분별하고 무계획적인 성행동을 가져오게 되어 그 결과로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김길정, 2003; 배미영, 2000; 유선미, 2001; 한상순, 1999).

성역할 정체감은 자아정체감과 마찬가지로 생물, 심리, 사회적인 자기 존재를 성별을 기준으로 하여 형성하는 것으로 사회적으로는 가장 안정된 정체감이다. 개인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여성으로서의 특성과 남성으로서의 특성을 습득하여 성역할 정체감이 발달된다. 성역할 정체감 측정도구로 측정되는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의 정도에 따라 성역할 정체감의 유형은 양성성, 남성성, 여성성, 미분화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양성성 정체감은 한 개인이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이 통합되어 있는 경우로 남성성과 여성성 점수가 모두 높아 남성적이면서 여성적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남성성 정체감은 그 사회에서 남성다운 것으로 인정되는 성향을 많이 가진 경

우로 남성성 점수는 높고, 여성성 점수는 낮은 경우이다. 여성성 정체감은 여성다운 특성의 점수는 높고, 남성성 점수는 낮은 사람을 말한다. 미분화 정체감은 남성성과 여성성 점수가 모두 낮은 경우로 어느 한쪽도 제대로 표현되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김영희, 1994; 박은옥·박영숙, 1999; 이병숙 외, 2002). 성역할 정체감은 심리적 안녕감과 관련성이 있었는데, Napholz (1994)의 연구에 의하면 미분화된 성역할 정체감을 가진 경우 우울 수준은 높고, 자아존중감과 생활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박은옥과 박영숙(1999)의 연구에서 미분화된 성역할 정체감을 가진 경우 위해한 건강행위와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적응양상에 관한 연구를 보면, 적응점수에서 양성성의 사람이 가장 높았고, 미분화인 사람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역할 정체감에서 미분화인 경우 성적이 좋지 않은 여고생들이 많았다는 연구도 있다(김미정, 1997; 염순교, 2003; 표미정, 1992; 최연순 외, 1999).

이상에서 개인의 학교 성적, 성폭력 경험, 가출, 학교에서의 피임교육, 부모에게 받은 피임교육, 피임관련 지식 등의 일반 특성과 우울·자아존중감·반사회적 양상 등의 성격특성, 자아정체감, 성역할 정체감 등이 10대 여학생 임신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요인으로 요약된다.

## 2. 사회·문화적 요인

부모와의 갈등이 10대 여학생의 임신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견해가 있는데, 부모와의 갈등에서 유래하는 무의식적 욕구에 의해서도 비합법적인 혼전 임신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임신을 부모와의 심리적 갈등의 결과로 보는 것은, 부모와의 갈등의 결과로 생기는 부모에 대한 분노와 증오를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분노를 자신에게 돌려서 자기를 학대하게 되는데, 혼전 임신을 이러한 자기학대의 한 표출로 보는 관점이다(김부자, 1986; 유선미, 2001; Furstenberg, 1992). Wu(1996)는 가족의 낮은 수입이 혼전 출산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고, Coley와 Chase-Levine(1998)도 가족



의 빈곤과 모친의 낮은 학력이 10대의 출산과 관계가 있다고 하였다. 10대 미혼모들은 의지할 아버지가 없기 때문에 중요한 정서적 지원처가 편모이며, 이들은 정서적 애착을 갖기 위해 성교나 임신을 하여 자신의 아기를 출산함으로써 정서적 애착을 추구하고, 편부모 밑에서 자라 애정결핍을 경험하거나 가족과 따로 사는 청소년은 사랑의 대상을 찾아 교제를 하게 되고 임신에 이른다는 연구들(박홍주 외, 1993; 유선미, 2001; Pick & Palos, 1995)도 있으나 윤미현(2000)은 미혼모들이 대부분 정상가정 출신이고 저소득 출신이지만, 중산층 이상도 상당수 차지하고 있어 더 이상 10대 미혼모 문제는 결손가정이나 저소득 가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일반 가정의 모든 10대들에게 해당되는 문제라고 하였다.

10대 여학생 임신을 소속된 사회집단 속에서 학습되는 하나의 문화적인 현상으로 보며, 10대 여학생 임신은 혼전 성관계나 임신을 허용하는 가치를 가진 가족이나 또래집단에 속해 있는 10대들이 그 집단의 규범 및 행동양식을 따른 결과로, 10대 임신에 영향을 주는 것은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또래집단의 영향이 크다고 한다. 10대들은 또래친구의 행동 습관에 의한 다양한 규범이 집단구성원에게 강하게 영향을 끼쳐 청소년의 비행, 혼전 성행위, 혼전 임신의 발생을 높인다고 한다(손홍숙, 1995; 유선미, 2001; 한영주, 1998). 부모와 자녀간의 상호작용은 자녀의 일차적 가치체계를 형성하는데 기초가 된다. 그러나 청소년기가 되면 부모의 영향력이 감소되기 시작하면서 같은 또래의 친구집단의 영향력이 커지게 된다. 또한 청소년기는 가족이라는 세계에서 또래라는 세계로 관심이 옮겨지면서 또래 간에 추구하는 가치와 행동기준을 따르려고 한다. 대학 진학이나 직업을 선택할 때는 부모의 의견에 유사하게 따르지만 혼전 성 행동에 대해서는 친구의 견해와 유사하게 따른다. 청소년의 심리적 사회적 발달 측면에서 친구집단은 청소년의 학습과 사회화에 기여하게 된다. 청소년은 잘못된 성문화를 또래 친구에게 파급하기도하고, 또래집단을 통해 이성애에 대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를 서로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배우게 되며 그런 행동을 지배하는 규범 및 태도를 배우게 된다(최연순 외, 1999; McCandless, 1976; Tornburg, 1971). 청소년들은 조기 성교하는 것이 친구들

사이에서 우월감을 갖게 할 수도 있고, 친구들이 성 활동을 하고 있다고 생각할수록 임신 위험이 높아진다고 하였다. 가족이나 이웃, 학교 환경이 긍정적인 영향을 강하게 미치고 있을 때조차도 위험 행동에 노출된 친구를 사귀는 청소년은 친구의 유사 문제행동에 참여하게 된다고 하였다. 성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청소년들은 대부분 친구 집단으로부터 성에 대한 지식을 처음 접하게 되므로 성 활동을 하겠다는 결정을 하는데도 친구들이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Dryfoos, 1990; Small & Bogenschneider, 1994). 10대 청소년들의 성행동과 성태도는 자신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행동이라기보다 그들 또래 집단의 영향에 의한 것이고, 혼전 임신은 주로 또래집단의 영향에 의한 것이며(Newcomer, Gilber & Udry, 1980; Young, 1964), 10대 미혼모들은 20대 미혼모들보다 친구들의 성적 개방성이 높았고, 친구들과 성에 대한 대화를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영주, 1998). 친구들의 성적 개방성이 높을수록 10대 청소년의 임신할 가능성은 높다고 예측할 수 있다 한다(윤미현, 2000).

10대의 성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대중매체의 역할을 무시할 수 없는데, TV나 인터넷 등에서 성과 관련된 정보들이 쏟아지면서, 청소년들은 음란물을 접하기 쉬운 사회적인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Kinsman, 1998; McWhirter, 1988). 10대 여학생 임신의 요인을 남녀의 전통적인 성 역할 탈피경향 증대와 대중매체를 통한 무분별한 성적자극 증대, 개방적인 성문화 요인 등 사회구조적인 요인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박홍주, 조영미, 채명숙, 1992). 성 개방 풍조를 조장하는 환경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어 청소년들의 성관계 및 임신의 가능성은 커지고 있다(유선미, 2001). 유교적인 전통과 윤리관이 내재된 성 금기적인 사회 분위기와 입시위주의 교육정책은 청소년들이 성에 대한 관심과 호기심을 충족시켜 줄 만큼 충분하고 계획적인 성교육을 실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청소년들은 음란물을 통하여 성에 대한 호기심을 충족시키고 있다. 이러한 이중적 상황 속에서 대다수의 청소년들은 성장하고 변화해 가는 자신의 신체와 그에 따른 의문이나 불안을 해결할 만한 정확한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 범람하는 왜곡된 성에 관한 정보 및 주위환경에 무방비하게 노출되어 있다(강현

주, 2000). 청소년기는 성에 대한 관심이 가장 고조되고 성에 대한 정체감을 확립하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대중매체는 성적 자극물의 방영을 통해 10대들을 지나치게 자극하고 성정체감 발달에 혼란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Levering, 1983). 실제로 Sylvester (1997)는 10대들은 TV나 대중매체에서의 환상적인 삶과 자신의 삶을 구별하는 능력이 성인보다 부족하며, 대중매체가 묘사하고 있는 성과 청소년들의 성행위와는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대중매체가 10대의 임신증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 10대 청소년 역시 대중매체의 성적 자극물,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음란물의 영향에 의해 임신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윤미현, 이재연, 2002).

이상에서 가족집단, 또래집단, 대중매체(음란물)등이 10대 여학생 임신에 영향을 주는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요약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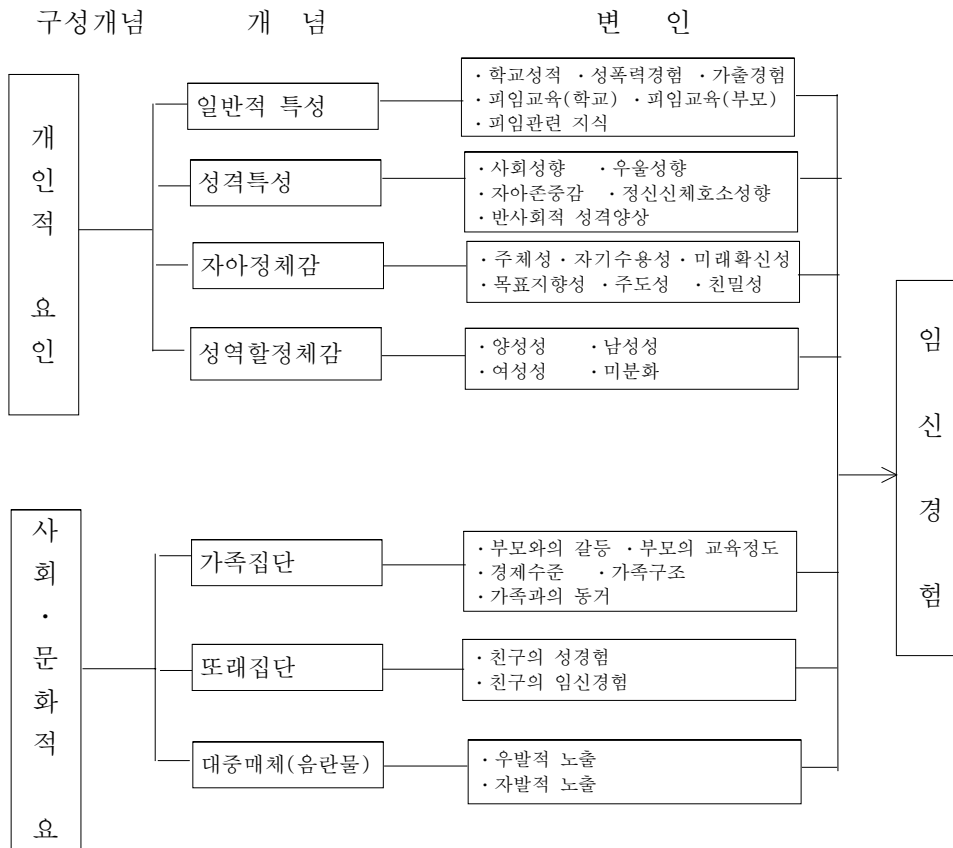
### Ⅲ. 연구의 개념적 기틀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은 이론적 배경을 토대로 10대 여학생의 임신경험 관련요인을 개인적 요인과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개인적 요인에는 개인의 일반적 특성(학교성적, 성폭력경험, 가출경험, 학교에서의 피임교육, 부모에게 받은 피임교육, 피임관련 지식), 성격특성(사회성향, 우울성향, 자아존중감, 정신신체호소성향, 반사회적 성격양상), 자아정체감(주체성, 자기수용성, 미래확신성, 목표지향성, 주도성, 친밀성) 및 성역할 정체감(양성성, 남성성, 여성성, 미분화)등이 포함되었다.

사회·문화적 요인에는 가족집단(부모와의 갈등, 부모의 교육정도, 가족의 경제수준, 가족구조, 가족과의 동거), 또래집단(친구의 성경험, 친구의 임신경험), 대중매체(음란물에 우발적 노출, 자발적 노출)등이 포함되었다.

이상에 근거한 본 연구의 개념적 기틀은 다음과 같다[그림 1].



[그림 1] 연구의 개념적 기틀

## IV. 연구방법

### 1. 연구설계

본 연구는 상황관련이론(situation relating theory)수준의 서술적 관계성 조사연구로서 선행연구 고찰을 통해 청소년 임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중심으로 10대 여학생의 임신경험과 관련된 위험요인을 예측하기 위한

횡단적 조사연구이다.

##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서울에 위치한 10개의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여학생과 서울, 경기, 강원에 위치한 4곳의 미혼모 보호시설에 입소하고 있는 10대 청소년들로서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자이며, 성실하게 응답한 고등학생 1548명, 미혼모 보호시설 입소자 61명 등 총 1609명의 자료를 분석에 이용하였다.

## 3. 연구도구

### 1) 성격특성

본 연구에서는 사회성향, 정신·신체증상 호소성향, 반사회적 성격양상, 우울성향, 자아존중감으로 구성된 성격특성의 5가지 하부요인을 김현수, 김현실(1999)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여 각각 측정하였으며 Likert식 6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각 하부요인의 성격성향을 잘 나타내주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도구의 개발당시 Cronbach's alpha 계수는 .79~.90 범위에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80~.86 범위 이었다.

### 2) 자아정체감

자아정체감은 자기 자신이 독자적인 존재라고 하는 자아의식과 사회에서의 역할, 다른 사람과의 연대감을 공유한다는 사회의식이 포함되는 것으로(김정남, 권윤희, 2002), 본 연구에서는 박아청(1996)이 개발하고 이승국(1999)이 6개의 하부요인으로 수정·보완한 '한국형 자아정체감 검사'를

이용하였으며, 6개의 하부요인은 주체성, 자기수용성, 미래 확신성, 목표 지향성, 주도성, 친밀성으로 각각 8문항, 총 48문항으로 구성되었다. Likert식 6점 척도로 측정된 점수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정체감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승국(1999)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계수는 .9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2~.93 범위이었다.

### 3) 성역할 정체감

성역할 정체감은 특정한 성별에 대해 바람직한 행동이라고 고정관념화된 기준을 개인이 내면화시킨 정도로(최은영, 1998), 본 연구에서는 이병숙 외(2002)가 개발한 '한국인의 성역할 정체감 검사도구'를 사용하여 Likert식 4점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측정 결과에 의한 응답자의 성역할 정체감을 중앙치 분리법을 사용하여 양성적, 여성적, 남성적, 미분화 등 4개 유형으로 분류된 것을 의미한다. 양성성은 한 개인이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이 통합되어 있는 경우로 남성성과 여성성 점수가 모두 높아 남성적이면서 여성적일 수 있음을 의미한다. 남성성은 그 사회에서 남성다운 것으로 인정되는 성향을 많이 가진 경우로 남성성 점수는 높고, 여성성 점수는 낮은 경우이다. 여성성은 여성다운 특성의 점수는 높고, 남성성 점수는 낮은 사람을 말한다. 미분화는 남성성과 여성성 점수가 모두 낮은 경우로 어느 한쪽도 제대로 표현되지 않은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김영희, 1994; 박은옥·박영숙, 1999). 도구개발시 Cronbach's alpha 계수는 .84~.92 범위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6~.93 범위이었다.

### 4) 부모와의 갈등

일상적인 생활에서 발생하는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와의 갈등 정도로 Printz, Foster, Kent 와 O'Leary(1979)의 문제항목조사지를 참고로 우리나라의 문화에 적합하게 백미숙(2000)이 수정·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Likert식 6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와의 갈등이 심

했음을 의미한다. 백미숙(2000)의 연구에서 Cronbach's alpha 계수는 .80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3이었다.

#### 4. 자료수집

자료수집 기간은 2003년 7월 8일부터 2004년 1월 27일까지 이었다. 각 기관의 장과 보건교사, 지도교사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한 후 연구에 참여하기로 동의한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자가 설문작성방법에 대한 설명을 한 후 연구대상자들이 자기보고법으로 작성 하였다.

#### 5. 자료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성경험, 임신경험 등에 대해서는 빈도와 백분율을 구하였으며, 임신 여부에 따른 일반적 특성을 포함한 각 변인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t-test와  $\chi^2$ 를 각각 실시하였다. 임신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단계적 변수 투입법을 이용한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여 예측모형을 구축하였다.

### V. 연구 결과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1>과 같았다.

<표 1>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사항

(N=1609)

변수	구분	N	(%)	변수	구분	N	(%)
연령	15세 이하	214	(13.3)	아버지 학력	중졸이하	314	(19.9)
	16세	496	(30.8)		고졸	933	(58.0)
	17세	510	(31.7)		대졸이상	329	(20.9)
	18세	352	(21.9)		무응답	33	( 2.1)
	19세	37	( 2.3)		중졸이하	437	(27.2)
학교 계열	인문계	798	(49.6)	어머니 학력	고졸	986	(61.3)
	실업계	797	(49.5)		대졸이상	150	( 9.4)
	기타	14	( 0.9)		무응답	36	( 2.2)
최종 (현재) 학력	고 1	553	(34.4)	어머니 직업	매일직장	857	(53.3)
	고 2	480	(29.8)		가끔일	304	(18.9)
	고 3	516	(32.1)		전업주부	384	(23.7)
	중졸이하	14	( 0.9)		무응답	64	( 4.0)
	고교중퇴/휴학	38	( 2.4)	아버지 직업	무직	48	( 3.0)
	고졸	8	( 0.5)		노동	161	(10.0)
학교 성적	상위권	301	(18.7)	아버지 직업	농어업	25	( 1.6)
	중위권	865	(53.8)		판매	42	( 2.6)
	하위권	443	(27.5)		회사, 공무원	535	(33.3)
종교	없다	729	(45.3)		자영업	621	(38.6)
	불교	215	(13.4)		전문직	87	( 5.4)
	천주교	123	( 7.6)		기타	42	( 2.6)
	기독교	526	(32.7)		무응답	48	( 3.0)
	기타	16	( 1.0)	흡연여부	유	312	(19.4)
경제적 사정	아주 잘사는 편이다	24	( 1.5)	무	1297	(80.6)	
	잘사는 편이다	142	( 8.8)	음주여부	유	809	(50.3)
	보통이다	943	(58.6)	무	800	(49.7)	
	조금은 어려운 편	420	(26.1)	가출경험	유	299	(18.6)
	매우 어렵다	80	( 5.0)	무	1310	(81.4)	
가족 구조	친부모	1284	(79.8)	성경험	유	257	(16.0)
	이혼, 별거	201	(12.5)		무	1352	(84.0)
	편모	56	( 3.5)	임신경험	유	103	( 6.4)
	편부	12	( 0.7)		무	1506	(93.6)
	양부모	2	( 0.1)	임신유형 (n=103)	성폭력	9	( 8.7)
	기타	54	( 3.4)		자의적 성행위	94	(91.3)
가족과의 동거여부	유	1520	(94.5)	인공 유산경험	유	52	( 3.2)
	무	89	( 5.5)	무	1557	(96.8)	
				출산경험	유	6	( 0.4)
				무	1603	(99.6)	



## 2. 개인적 요인에 따른 임신군과 비임신군의 차이

### 1) 일반적 특성

임신군과 비임신군은 연구대상자가 생각하는 자신의 학교성적, 가출경험, 성폭력경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학교에서의 피임교육과 부모에게 받은 피임교육은 임신군과 비임신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피임관련 지식은 임신군과 비임신군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

<표 2>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신군과 비임신군의 차이

(N=1609)

변 수	구 분	임신 n=103		비임신 n=1506		$\chi^2$
		N (%)	N (%)	N (%)	N (%)	
학교성적	하위권	61	(59.2)	382	(25.4)	55.995***
	중위권	34	(33.0)	831	(55.2)	
	상위권	8	( 7.8)	293	(19.5)	
가출 경험	없음	24	(23.3)	1286	(85.4)	245.658***
	있음	79	(76.7)	220	(14.6)	
성폭력 경험	없음	82	(79.6)	1449	(96.2)	57.617***
	있음	21	(20.4)	57	( 3.8)	
피임교육(학교)	없음	30	(29.1)	408	(27.1)	.201
	있음	73	(70.9)	1098	(72.9)	
피임교육(부모)	없음	87	(84.5)	1275	(84.7)	.003
	있음	16	(15.5)	231	(15.3)	
피임 관련 지식	잘 모른다	15	(14.6)	389	(25.8)	10.214**
	대충 알고있다	72	(69.9)	987	(65.5)	
	잘 알고있다	16	(15.5)	130	( 8.6)	

\*\*\*p<.001, \*\*p<.01

### 2) 성격특성

사회성향과 자아존중감은 임신 경험이 없는 10대여학생의 점수가 높은

반면, 정신·신체증상 호소성향과 반사회적 성격양상, 우울성향은 임신경험이 있는 10대여학생의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성격특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

<표 3> 성격 특성에 따른 임신군과 비임신군의 차이

(N=1609)

하부 요인	임신 n=103		비임신 n=1506		t
	Mean	SD	Mean	SD	
사회성향	3.45	.73	3.96	.64	7.693***
정신·신체증상 호소성향	3.37	.89	2.94	.91	-4.596***
반사회적 성격양상	3.42	.86	2.85	.82	-6.710***
우울성향	3.92	.74	3.40	.71	-7.154***
자아존중감	3.04	.89	3.81	.83	9.073***

\*\*\*p<.001

### 3) 자아정체감

임신 경험이 있는 103명과 경험이 없는 1506명의 자아 정체감을 비교한 결과 하부 요인별로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표 4>

<표 4> 자아 정체감에 따른 임신군과 비임신군의 차이

(N=1609)

하부 요인	임신 n=103		비임신 n=1506		t
	Mean	SD	Mean	SD	
주체성	3.13	.68	3.81	.72	9.359***
자기수용성	3.44	.87	4.41	.94	10.212***
미래확신성	3.21	.87	3.89	1.13	6.070***
목표지향성	3.12	.72	3.68	.78	7.015***
주도성	3.29	.84	3.73	.77	5.458***
친밀성	3.25	.95	3.82	.85	6.496***

\*\*\*p<.001

## 4) 성역할 정체감

성역할 정체감을 임신경험 여부에 따라  $\chi^2$ 한 결과 임신경험이 없는 10대 여학생은 양성성이 33.7%로 많았으나, 임신경험이 있는 10대 여학생은 73.8%가 미분화로 나타나 임신경험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표 5>.

&lt;표 5&gt; 성역할 정체감에 따른 임신군과 비임신군의 차이

(N=1609)

구 분	임신 n=103	비임신 n=1506	$\chi^2$
	N(%)	N (%)	
남성성	6( 5.8)	272(18.1)	78.849***
여성성	11(10.7)	255(16.9)	
양성성	10( 9.7)	507(33.7)	
미분화	76(73.8)	472(31.3)	

\*\*\*p&lt;.001

## 3. 사회·문화적 요인에 따른 임신군과 비임신군의 차이

## 1) 가족집단

## (1) 부모와의 갈등

부모와의 갈등은 임신경험이 있는 10대 여학생이 3.09점으로 임신경험이 없는 10대 여학생의 2.85점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표 6>.

<표 6> 부모와의 갈등에 따른 임신군과 비임신군의 차이

(N=1609)

변 수	임신 n=1506		비임신 n=103		t
	Mean	SD	Mean	SD	
부모와의 갈등	2.85	.83	3.09	1.01	2.769**

\*\*p<.01

(2) 가족관련 변인

가족관련 변인에 따른 임신 경험의 차이를  $\chi^2$ 한 결과 연구대상자가 생각하는 가족의 경제수준, 아버지학력, 어머니학력, 가족구조, 가족과의 동거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표 7>.

<표 7> 가족관련 변인에 따른 임신군과 비임신군의 차이

(N=1609)

변 수	구 분	임신 n=103		비임신 n=1506		$\chi^2$
		N(%)	N(%)	N(%)	N(%)	
경제 수준	매우 어렵다	16	(15.5)	64	( 4.2)	58.641***
	조금은 어려운 편이다	47	(45.6)	373	(24.8)	
	보통이다	31	(30.1)	912	(60.6)	
	잘 사는 편이다	6	( 5.8)	136	( 9.0)	
	아주 잘 사는 편이다	3	( 2.9)	21	( 1.4)	
아버지 학력	중졸이하	41	(41.0)	273	(18.5)	30.121***
	고졸	46	(46.0)	887	(60.1)	
	대졸이상	13	(13.0)	316	(21.4)	
어머니 학력	중졸이하	44	(46.3)	393	(26.6)	19.775***
	고졸	40	(42.1)	946	(64.0)	
	대졸이상	11	(11.6)	139	( 9.4)	
가족구조	결손가족	50	(48.5)	275	(18.3)	54.850***
	친부모가족	53	(51.5)	1231	(81.7)	
가족과의 동거여부	비동거	34	(33.0)	55	( 3.7)	159.011***
	동거	69	(67.0)	1451	(96.3)	

\*\*\*p<.001

## 2) 또래집단

친구 중 성경험자가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비임신군의 41.6%, 임신군의 89.3%이었고, 임신한 경험이 있는 친구를 묻는 질문에는 비임신군의 18.9%, 임신군의 79.6%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친구의 성경험과 친구의 임신경험 모두 임신군과 비임신군 간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8>.

<표 8> 또래집단에 따른 임신군과 비임신군의 차이

(N=1609)

변 수	구 분	임신 n=103		비임신 n=1506		X <sup>2</sup>
		N(%)		N(%)		
친구 중 성경험자	없다	11	(10.7)	880	(58.4)	88.966***
	있다	92	(89.3)	626	(41.6)	
친구 중 임신 경험자	없다	21	(20.4)	1222	(81.1)	202.494***
	있다	82	(79.6)	284	(18.9)	

\*\*\*p<.001

## 3) 대중매체(음란물)

임신경험이 있는 10대 여학생들이 우발적 및 자발적 음란물 노출 경험이 임신경험이 없는 10대들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임신군과 비임신군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9>.

<표 9> 음란물 노출경험에 따른 임신군과 비임신군의 차이

(N=1609)

변 수	구 분	임신 n=103		비임신 n=1506		X <sup>2</sup>
		N(%)		N(%)		
우발적 음란물 노출 경험	없다	13	(12.6)	483	(32.1)	17.104***
	있다	90	(87.4)	1023	(67.9)	
자발적 음란물 노출 경험	없다	34	(33.0)	906	(60.2)	29.255***
	있다	69	(67.0)	600	(39.8)	

\*\*\*p<.001

#### 4. 10대 여학생의 임신경험 관련요인에 관한 예측모형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구축하기 위해 임신군과 비임신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변수들을 단계적 선택방법(stepwise selection method)으로 투입하여 구축된 로지스틱 회귀모형은 아래와 같다<표 10>.

모형에 유의한 변인은 개인적 요인 중 가출경험, 자기수용성, 미분화된 성역할 정체감, 사회·문화적 요인 중 가족과의 동거, 친구의 성경험, 친구의 임신경험으로 나타났다. 최종 추출된 6개의 예측변인 중 가출경험의 승산비(odds ratio)가 8.751로 다른 예측변인들에 비해 임신여부에 대한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미분화된 성역할 정체감(7.798), 친구의 임신경험(7.236)이었다.

<표 10> 로지스틱 회귀모형

요 인	Parameter Estimate	Std. Error.	Wald Chi-Square	Pr > Chi-Square	Odds Ratio
Intercept	-2.763	.839	10.855	.001	
자기수용성	-.581	.163	12.636	.000	.559
미분화 성역할정체감	2.054	.320	41.247	.000	7.796
가출경험	2.169	.308	49.638	.000	8.751
친구의 성경험	1.174	.434	7.304	.007	3.234
친구의 임신경험	1.979	.342	33.525	.000	7.236
가족과의 동거	-1.751	.410	18.282	.000	.174
Concordant=92.7%				Tied=1.5%	
Disconcordant=5.8%				c-통계량=.950	
-2LL=352.426			Sensitivity=70.5%		
Model chi-Square=357.165 df=6, p=.000			Specificity=96.7%		

위의 예측위험요인으로 10대 여학생의 임신발생 확률을 구하는 로지스틱 회귀방정식의 최종형태는 아래와 같다.

$$Z = -2.763 - 0.581\text{자기수용성} + 2.054\text{성역할정체감(미분화)} + 2.169\text{가출경험} \\ + 1.174\text{친구의성경험} + 1.979\text{친구의임신경험} - 1.751\text{가족과의 동거}$$

본 연구결과 구축된 예측모형에서 일치율(concordant) 92.7%, 불일치율(disconcordant) 5.8%, 민감도 70.5%, 특이도 96.7%이었고, c-statistics값은 .950으로 예측률이 높음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 최종 추출된 모형의 적합도를 검정해 본 결과 -2LL값은 352.426, Model chi-Square도 357.165(df=6, p=.000)로 최종 로지스틱 회귀모형이 적합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H-L 통계량(hosmer and lemeshow goodness of fit test)은 3.298(p=.914)로 모형적합이 잘 되었음을 보여주었다.

## VI. 논 의

본 연구의 자료 분석 결과 나타난 10대 여학생의 임신경험과 관련된 개인적 요인으로는 가출경험, 자아정체감의 하부요인인 자기수용성, 미분화성역할 정체감 등이 예측변인으로 규명되었고, 사회·문화적 요인으로는 친구의 성경험, 친구의 임신경험, 가족과의 동거가 예측변인으로 규명되었다.

개인의 일반적 특성의 변인인 가출경험은 예측 모형에서 주 위험요인으로 나타났으며, 6가지 예측요인 중 가장 높은 승산비(odds ratio)를 보이고 있다. 한상순(2000)의 연구에서 10대 임신한 여학생들은 가출 경험자가 많았고, 김영숙(1998)의 연구에서 미혼모의 51.5%, 배영미(2001)의 연구에서는 10대 미혼모의 60.8%가 가출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도 임신경험이 있는 10대 여학생의 76.7%가 가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여학생의 성 행동으로 인한 임신과 가출에 관한 사항은, 청소년의 경우 가출이 일탈행동이나 성행동과 연결될 수 있다는

선행연구(김경희 외, 2002; 박중묵, 1999; 배영미, 2001; 한상순, 2000; 정혜경, 2000)의 보고와 유사하였다. 김경희 외(2002)는 이러한 결과에 대하여 학교와 가정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청소년 주변의 지지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이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한 도덕적 결과를 예측하면서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긍정적인 대응기전을 만들어 가도록 도와주어야 한다는 사실을 시사한 바 있다.

10대 여학생의 임신경험 관련 요인의 하나를 낮은 자아정체감이라고 본 보고들(김길정, 2003; 배미영, 2000; 유선미, 2001; 한상순, 1999)이 있었는데, 본 연구에서도 임신경험이 있는 10대 여학생들과 임신경험이 없는 10대 여학생들 간에 자아정체감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고, 자아정체감의 하부요인 인 자기수용성은 10대 여학생의 임신경험 관련 요인에 관한 예측 모형에 유의한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자아정체감이란 자기동일성에 대한 자각인 동시에 자기의 위치, 능력, 역할 및 책임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므로, 자아정체감의 혼돈으로 인해 발생 할 수 있는 10대 여학생의 임신을 예방하기 위해, 개인의 적응과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자아정체감 관련 요인에 관심을 가지고, 자아정체감을 잘 형성하여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을 가치있고, 능력있는 존재로 인식하여 긍정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개발된 프로그램을 학교나 지역사회에서 청소년들에게 적용하여야 하겠다.

개인의 외적행동, 정서적 반응, 인지적 기능, 심리사회적 적응을 가장 뚜렷하게 방향 지우는 근거로 작용하는 성역할 정체감에 대한 여러 선행연구들을 볼 때(김미정, 1997; 박은옥과 박영숙, 1999; 염순교, 2003; 표미정, 1992), 성역할 정체감이 10대 여학생의 임신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어 개인적 요인에 성역할 정체감을 포함시켰는데, 임신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73.6%가 성역할 정체감이 미분화로 분류되었고 임신경험이 없는 청소년은 31.3%만이 미분화로 분류되었으며, 미분화된 성역할 정체감이 10대 여학생 임신경험 관련 예측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중·고등학교 성교육 교과서에 성역할 정체감에 대한 내용을 충분하게 삽입하여 학교에서의 성교육 시간에 성역할 정체감형성에 도움이 되는 교육을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부모의 피임교육과 학교의 피임교육은 임신군과 비임신군에서 거의 같은 비율로 나타났다. 부모에게 피임교육을 받았던 경우는 임신군의 15.5%, 비임신군의 15.3%이었고, 학교에서의 피임교육은 임신군의 70.9%, 비임신군의 72.9%가 '있다'라고 응답하였으나 피임관련 지식에서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임신군의 15.5%, 비임신군의 8.6%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로부터의 피임교육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제시해주고 있으며, 학교에서의 피임교육은 70%이상의 대상자들이 받았으나 피임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임신군 15.5%, 비임신군 8.6%로 학교에서의 피임교육이 효과적이지 못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피임에 대해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임신군이 15.5%로 8.6%인 비임신군보다 높았는데, 김부자(1986)도 미혼모가 일반여성보다 피임에 대한 인지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하면서 이는 임신경험을 통해 피임에 대한 필요성과 관심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결과도 같은 맥락으로 해석하면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10대 여학생들의 임신을 예방하고 이들에게 건전한 성 의식을 습득하고 바람직한 성 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는 절제와 피임을 강조하는 청소년 성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청소년들에게 학교와 지역사회를 통해 보급하고 활용할 수 있는 물리적인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 하겠다. 10대들의 효율적인 피임법 사용으로 10대의 임신이 감소한 네덜란드(Ketting & Visser, 1994)와 금욕과 피임을 권한 결과 청소년임신이 감소된 미국(Pierre & Cox, 1997)의 예를 참고하여, 성역할 정체감에서 미분화로 분류된 10대 여학생들에게는 절제와 피임을 강조하는 좀 더 차별화된 성 교육을 실시하여서 임신을 예방하고, 바람직한 성 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개인적 요인에서 가출경험, 자아정체감의 하부요인인 자기수용성, 미분화 성역할 정체감이 10대 여학생 임신경험 관련 요인에 관한 예측 모형에 유의한 변인으로 포함되었고, 학교성적, 성폭력경험, 성격특성은 임신군과 비임신군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있었으나 예측변인으로는 포함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가 편의추출된 대상자 군의 편중에 의한 차이인지의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서 반복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사회·문화적 요인에서, 가족집단의 변인 중 가족과의 동거가 10대 여학생의 임신을 예측하는 변인으로 확인되었는데, 가족의 환경적 요인이 청소년의 성행위와 관련이 있음은 여러 선행연구(정혜경, 2000; Christine & Frank, 1998; Whitaker et al., 1999)에서도 보고된 바 있다. 이런 연구들을 통해 볼 때 가족의 애정과 관심이 청소년 성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가족들의 보호와 관심 속에서 성장하지 못하는 환경을 가진 청소년들이 안정되고 지지적인 분위기 속에서 바람직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많은 관심과 지지를 제공하고, 이들을 위한 성상담 및 성교육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노력을 하여야 함을 시사한다.

또래집단이 10대 여학생의 임신경험 관련요인에 관한 예측모형에 유의한 변인으로 포함되었는데, 친구의 성경험과 친구의 임신경험 모두 예측모형에 유의한 변인으로 확인되었다. 친구의 임신경험은 가출경험 다음으로 높은 승산비(odds ratio)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10대들은 또래 친구 집단의 영향력이 커지게 되며, 또래 간에 추구하는 가치와 행동기준을 따르려고 하고, 혼전 임신은 주로 또래집단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본 선행연구들(김부자, 1986; 윤미현, 2000; 한국여성개발원, 1984; 한영주, 1998; Dryfoos, 1990; Newcomer, Gilber & Udry, 1980; Small & Bogenschneider, 1994; Young, 1964)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또래집단의 문화가 10대 여학생의 임신경험 관련요인에 관한 예측모형에 유의한 변인임으로 긍정적인 10대들의 또래집단 문화를 형성하는데 사회적인 노력이 필

요함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에서 10대들이 자아를 발견하고 긍정적으로 성적인 욕구를 승화시킬 수 있도록 청소년 주변의 물리적, 정서적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하겠다. 그리고 육체적이고 본능적인 성적 쾌락을 극복하고 학업을 통한 성취감이나 스포츠나 취미활동을 통한 정서적 만족감을 느낄 수 있도록 10대들을 지도하여야 하겠다.

사회·문화적 요인 중 가족과의 동거, 친구의 성경험과 친구의 임신경험이 예측변인으로 포함되었고, 가족집단의 하부변인인 부모와의 갈등, 부모의 교육정도, 경제수준, 가족구조와 음란물에 대한 우발적 및 자발적 노출 모두 임신군과 비임신군에서 차이가 있었으나 예측모형에 유의한 변인으로 포함되지는 못하였는데, 이러한 결과가 편의추출된 대상자 군의 편중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반복연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제시된 이론적 틀은 10대 여학생의 임신경험에 관한 예측요인을 규명해 주고 있으므로, 10대 여학생의 임신 예방과 청소년의 올바른 성문화 형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교육적인 측면에서 본 연구결과 가출경험, 자아정체감의 하부요인인 자기수용성, 미분화된 성역할 정체감, 가족과의 동거, 친구의 성경험, 친구의 임신경험 등이 10대 여학생의 임신경험 관련요인에 관한 예측요인으로 확인되었으므로, 확인된 사항들을 기본으로 한 보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교와 지역사회에 청소년들에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론적 측면에서는 다차원적인 여러 관련요인을 포괄적으로 분석하여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구축되지 못하였던 10대 여학생의 임신경험에 관한 예측모형을 개발함으로써 청소년 이론의 발전에 일면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황관련수준의 본 연구는 상황생성수준의 연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한 것으로 청소년에 관한 연구 측면의 발전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실무적 측면에서는 10대 여학생의 임신경험과 관련된 예측요인을 사전에 파악하여 관리하는 예방적 차원의 중재 방안을 마련하는데 본 연구의 이론적 틀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VI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선행연구 및 문헌을 토대로 10대 여학생의 임신경험과 관련된 개인적 요인과 사회·문화적 요인에 대한 포괄적인 분석을 통해 10대 여학생의 임신경험 관련요인에 관한 예측모형을 구축함으로써, 10대 여학생의 임신 예방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이론적 기틀을 마련하여 청소년의 올바른 성 문화 형성에 기여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연구 설계는 서술적 관계성 조사연구이고, 연구대상은 편의 추출된 서울에 위치하고 있는 10개의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여고생 1548명과 서울, 경기, 강원도에 위치한 4곳의 미혼모 보호시설에 있는 10대 여성 61명 등 1609명이며, 자료수집기간은 2003년 7월 8일부터 2004년 1월 27일까지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를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t-test,  $\chi^2$ ,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임신에 영향을 미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단계적 변수 투입법을 이용한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여 예측모형을 구축하였고, H-L 통계량(hosmer and lemeshow goodness of fit test), -2LL값, model chi-square로 구축된 예측모형의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0대 여학생의 임신경험과 관련된 개인적 요인으로는 가출경험, 자아정체감 중 자기수용성, 미분화 성역할 정체감 등이 예측변인으로 규

명되었고, 사회·문화적 요인으로는 가족집단(가족과의 동거), 또래집단(친구의 성경험, 친구의 임신경험) 등이 예측변인으로 규명되었다.

둘째, 구축된 예측모형의 민감도는 70.5%, 특이도는 96.7%, c-통계량은 0.950으로 높은 예측률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셋째, 구축된 예측모형의 적합도는 -2LL이 352.426, model chi-square는 357.165(df= 6, p=.000), H-L 통계량은 3.298(p=.914)로 구축된 로지스틱 회귀모형이 적합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된 이론적 틀의 일반화를 위해서는 다른 사회문화적 배경에서의 반복연구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 의식 습득과 바람직한 성 태도 형성을 위해 본 연구에서 검증된 예측요인을 통제하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이를 검증하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 참 고 문 헌

- 강영실(2000). 청소년 재임신 예방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강현주(2000). 한국의 청소년 성의식에 관한 일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경희·박경숙·김수강(2002). 청소년의 성허용성 예측요인, 기본간호학회지, 9(3), 501-512.
- 김길정(2003). 고등학생의 자아정체감과 진로성숙도의 관계.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만지(2002). 여자청소년의 성에 대한 태도 및 성관계 경험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 151호, 가을호, 170-186.
- 김미정(1997). 대학생의 성역할 정체감과 자아분화의 관계연구.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부자(1986). 미혼모의 가정환경과 성 태도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상원(1999). 성교육/성상담의 이론과 실제. 서울 : 교육출판사.
- 김성이 · 김만지(2002). 비행관련 변인이 10대 여자청소년의 첫 임신 연령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 연구, 13(2), 129-151.
- 김영숙(1998). 미혼모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영희(1994). 성역할 정체감과 학습된 무기력. 서울 : 정민사.
- 김정남 · 권윤희(2002). 청소년이 지각한 가족지지와 자아정체감과의 관계. 지역사회간호학회지, 13(1), 124-136.
- 김현수 · 김현실(1999). 한국청소년의 성격특성 측정도구개발. 정신간호학회지, 8(1), 190-201.
- 문진숙(2002). 우리나라 청소년 미혼모의 실태분석. 동아대학교 정책과학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 박수천(1998). 여성복지행정의 현황과 추진방향. 여성건강간호학회, 성교육 및 성상담 전문교육과정, '98 하계학술대회.
- 박아청(1996). 한국형 자아정체감 검사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15(1), 140-162.
- 박영주·구병삼·홍명호·김탁·신재철·이찬·문준·오민정(1998). 한국 10대 여성의 임신, 인공유산 및 출산경험실태. 대한간호학회지, 28(3), 573-582.
- 박은옥·박영숙(1999). 대학생의 성역할 정체감과 건강행위. 여성건강간호학회지, 5(3), 379-388.
- 박홍주·조영미·채명숙(1993). 미혼모 정책에 대한 여성학적 비판. 이화여자 대학교 대학원 연구논집, 25.
- 배미영(2000). 미혼모 발생 요인 분석-미혼모 집단과 비교집단을 중심으로. 대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영미(2001). 청소년 미혼모의 개인 심리적 특성과 가족체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백미숙(200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와의 갈등.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변명숙(2000). 미혼모의 사회적 문제점과 복지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보건복지부(2001). 보건복지백서.
- 서울시 부녀복지회 연합회(1996). 한국 미혼모 복지의 현황과 발전방향. 제1차 여성 복지 세미나 보고서.
- 손홍숙(1995). 가정복지면에서 본 미혼모 발생요인 및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0(5), 51-62.
- 염순교(2003). 성역할 정체성과 성경험. 여성건강간호학회지, 9(3), 309-318.
- 유선미(2001). 10대 미혼모 실태에 대한 연구.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윤미현(2000). 10대 미혼모의 임신 및 유아입양관련요인들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윤미현·이재연(2002). 한국 10대 미혼모의 특성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23(3), 149-169.
- 이병숙·김명애·고효정(2002). 한국인의 성역할 정체감 검사도구 개발. 대한간호학회지, 32(3), 373-383.
- 이숙영·김진희·김광수(1996). 폭력 및 성폭력 실태조사 : 청소년 폭력 및 성폭력 피해근절을 위한 대 토론회, 청소년대화의 광장, 45-70.
- 이숙희(2000). 보호시설 미혼모의 삶에 대한 참여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승국(1999). 청소년의 자아정체감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생태학적 변인들의 구조분석.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순복·김소야자·한인영·박영주(2000). 십대 여학생의 임신실태 및 예방대책. 서울 : 청소년보호위원회.
- 장순복, 김소야자, 한인영, 박영주, 강현철, 이선경(2001). 십대 여학생의 성행태와 성경험 관련요인. 대한간호학회지, 31(5), 921-931.
- 정혜경(2000). 청소년 가출에 관한 예측모형.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주숙남(1999). 미혼모의 출산경험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천혜정·배선희·송말희·송현애·전길양(2002). 미혼모 보호 시설에 거주하는 10대 미혼모의 경험에 대한 연구 : 성과 임신 관련 경험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0(4), 1-13.
- 최연순·장춘자·조희숙·최양자·장순복·박영숙·이남희·조동숙·이은희 (1999). 여성건강 간호학. 서울 : 수문사.
- 최은영(1998). 중년여성의 건강증진 생활양식과 성역할 정체감, 자기효능감과 의 관계.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표미정(1992). 고교생의 성역할 정체감과 내외통제성과의 관계 연구. 동국대학



- 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국경제신문 2003. 7. 7일자 기사 : 청소년 17% 성경험있다-소년자원보호자조사
- 한국여성개발원(1984). 미혼모 실태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교육연구실.
- 한상순(1999). 성교육 및 성상담 전문교육과정(III). 115-136.
- \_\_\_\_\_(2000). 미혼모의 이해와 보호. 여성건강간호학회, 성교육 및 성상담 전문교육과정(III), 115-136.
- 한영주(1998). 10대와 20대 미혼모의 자존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진숙(2001). 10대 미혼모의 임신과 분만 체험 연구. 충남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Bogensneider, K., Small, S., & Riley, D.(1994). *An ecological, risk-focused approach for addressing youth-at-risk issues*. Wisconsin Youth Futures Technical Report.
- Butler, J. R. & Burton, L. M.(1990). Rethinking teenage childbearing: Is sexual abuse a missing link. *Family Relations*. Jan.
- Christine, L. Y. P. & Frank, A. B.(1998). Communication about sexual behavior among adolescent woman, their family, and peers. *Families in Society*, 79(2), 206-211.
- Coley, R. L. & Chase-Lansdale, P. L.(1998). Adolescent pregnancy parenthood: recent evidence and future directions. *American Psychologist* 52 (2), 152-166.
- DryFoods, J. G.(1985). School-based health clinics: A new approach to preventing adolescent pregnancy. *Family Planning Perspectives*, 17, 70-75.
- DryFoods, J. G.(1990). *Adolescent at risk.*, Oxford University press.
- Furstenberg, F. F.(1992). Teenage childbearing and cultural rationality:

- A thesis in search of evidence. comment on A. T. Geronimus.  
*Family Relations*, 41, 239-243.
- Garret, S. C. & Tidwell, R.(1999). Difference between adolescent mothers and nonmothers: An interview study. *Adolescence*, 34.
- Kalilm A. & Kunz, J.(1999). First birth among unmarried adolescent girls: risk and protective factors, *Social Work Research*, 23(3).
- Ketting, E. & Visser, A. P.(1994). Contraception in the Netherlands: The low abortion rate explained. *Patient Education and Counseling*, 23, 161-171.
- Kinsman S. B.(1998). Early sexual initiation: The role of peer norms. *Pediatrics*, 102(5), 1185-1192.
- Kirby, D., Wasak, C., & Ziegler, J. (1991). Six school-based clinics: Their reproductive health service and impact on sexual behavior. *Family Planning Perspectives*, 23, 6-16.
- Levering, C. S.(1983). Adolescent pregnancy programs collection: An introduction. *Child Hood Education*, January/February, 182-185.
- McCandless, B. R.(1976). *Adolescents: Behavior and development*. New York : Holt Rinehart and Winston, 307-310.
- McWhirter, J. J.(1998). *At risk youth*, Brooks/Cole Publishing Company, 140-142.
- Moore, K. A.(1990). *Facts at Aglance 1990*. Washington, D. C.: Child Trends.
- Napholz, L.(1994). Indices of psychological well-being and sex role orientation among working women. *Health Care Women Int*, 15(4), 307-316.
- Newcomer, S. F., Gilbert, M., & Udry, J. R. (1980). *Perceived and actual same sex peer behavior as determinants of adolescent*

- sexual behavior*. Paper Presented at Annual Meeting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Pick, S. & Palos, P. A.(1995). Impact of the family on the sex lives of adolescents, *Adolescence*, 30, 667-675.
- Pierre, N. & Cox, J.(1997). Teenage pregnancy prevention programs. *Current Opinion in Pediatrics*, 9(4), 310-316.
- Prinz, R. J., Foster, S., Kent, R. N., & O'Leary, K. D.(1979). Multivariate assessment of conflict in distressed and nondistressed mother-adolescent dyads. *Journal of Applied Behavior Analysis*, 12, 691-700.
- Small, S. & Bogenschneider, K.(1994). *Youth at risk for early sexual activity and teenage parenthood*, Wisconsin Youth Futures Technical Report 11.
- Spitz A. M., Ventura S. J., Koonin L. M., Strauss L. T., Frye A., Heuser R. L., Smith J. C., Morris L., Smith S., Wingo P., & Marks, J. S. (1993). Surveillance for pregnancy and birth rate among teenager, by State-United States, 1980-1990, *MMWR*, 42(SS-6), 1-27.
- Sylvester, K.(1997). Preventable calamity: How to reduce teenage pregnancy. *Family Relations*, 125, 32-35.
- Thornburg, H. D.(1971). Contemporary adolescence: Reading belmont: Wadsworth, 183-187.
- Trad, P. V.(1999). Assessing the patterns that teenage pregnancy. *Adole-scence*, 34.
- Wazak, C.(1990). Public costs of teenage child bearing. *TEC NETWORKS*, 27, 3-8.
- Whitaker, D. J., Miller, K. S., May, D. C., & Levin, M. L.(1999).

Teenage partners' communication about sexual risk and condom use: The importance of parent-teenager discussions. *Family Planning Perspectives*, 31(3), 117-121.

Wu, L. L.(1996). Effects of family instability, income and income instability on the risk of a premarital birth.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61, 389-406.

Young, L.(1964). *Out of wedlock: A study of the problems of unmarried mother and her child*. New York: McGraw-Hill Book, Co.

Zuckerman, M.(1994). *Behavioral expressions and biosocial bases of sensation seeking*,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ABSTRACT

### A Forecast Model for Teenage Girls' Pregnancy

Lee, Jong-Hwa\*

This study aims to prevent teenage pregnancy and contribute to a sound sex culture amongst teenager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548 female high school students from Seoul and 61 teenage women staying in unmarried-mother shelters located in Seoul, Gyeonggi and the Kangwon Province.

The data was analyzed using SPSS. A forecast model was also constructed using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hat made use of the stepwise selection method.

The findings are as follows:

1. Runaway experience, self-acceptance out of self-identity, and undifferentiated gender role identity turned out to be key individual predicting factors, while family groups (living with families) and peer groups (friends' sex experience, friends' pregnancy experience) were found to be the key social and cultural predicting factors.
2. The sensitivity of the constructed forecast model was 70.5% with specificity at 96.7% and c-statistics at 0.950, which refers to a high prediction rate.

---

\* CHUNG-ANG University

3. The goodness-of-fit of the constructed forecast model is 3.52426 for -2LL, 357.165 of Model chi-square (df=6, p=.000), and 3.298 (p=.914) for H-L statistic. It proved that the constructed logistic regression model was suitable.

The above findings identify the predictive factors of teenage pregnancy, and are expected to prevent teenage pregnancy and contribute to a sound sex culture amongst teenagers. It is necessary to develop programs that control the predictive factors verified in this study and to conduct future studies for verification of teenagers' sound sexual awareness acquisition and development of a desirable attitude towards sex.

**Key Words : teenage, pregnancy**

투고일 : 5월 2일, 심사일 : 6월 7일, 심사완료일 : 6월 22일